

목포에 1000억 들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핵심 ... 기재부 예타 최종 선정

김·전복 등 전남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활성화 기대

수산가공제품의 대중국 수출 거점이 될 목포 서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의 해양수산 융복합벨트의 핵심 시설인 수출단지에 대한 내년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사업비 100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300억원)의 '전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

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 온 결과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자치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 및 투자심사 의뢰 등을 함께 추진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건의한데 이어 순차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

보할 방침이다.

중공 목표 시점은 2020년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수산물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 등은 물론 가공시설 60개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 구입비 60억원은 목포시가 부담하고, 운영까지 맡게 된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처는 "이번 서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당위성과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활동에서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목포 대양일반산단지에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출 활성화를 견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핵심시설로 하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도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6기 들어 기획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3713억원을 포함해 5307억원으로, 해양수산 융복합산업 육성, 가공유통고도화 및 생산기반 강화,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해양수산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오는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세월호 선체 4~6월 인양"

김영석 해수부장관 밝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6월 사이에 인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최종 인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월15일 현재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필요한 66개의 와이어 중 50개 와이어 연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 바다모래 채취 연장 문제에 대해선 "어업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하겠다"며 "필재공급 물량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증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 일 어업협상 추진현황에 대해선 "지난 1월 양국간 7번째 협상을 통해 제주 연승어선 갑축에 대한 이견해소를 추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이견해소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성완중 리스트 항소심 무죄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16일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홍 지사는 이날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선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들끓는 폭우(柳風暴雨,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을 다함)의 자서로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미래비전 대토론회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2차 대토론회가 16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민주평화광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권교체를 위한 대연정과 지방분권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2차 대토론회가 16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민주평화광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권교체를 위한 대연정과 지방분권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쇠귀에 경 읽기' ... 전남도의회 또 외유성 해외연수 비난

기획위 남아공·경제관광위 인도네시아 이어 교육위 25일 하와이

전남도의회가 여론을 도외시킨 채 또다시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를 다녀올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8일 5박8일, 4일~9일 4박6일 일정으로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다녀왔다. 교육위 해외연수는 소속 위원 9명 중 8

명에다가 농림해양수산위 3명, 보건복지환경위와 안전건설소방위 1명씩을 끼워넣듯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4800만원, 자부담 300여만원 등 모두 5100여만원으로 1인당 393만원꼴이다. 연수목적은 다문화·다민족 사회이면서도 교육공동체 활동이 활성화한 하와이에서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호놀룰루에서 현지 교육청, 향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정 등이 연수 계획서에 포함됐다. /이종행기자zagoon@kwangju.co.kr

그러나 이들 일정 대부분은 애초의 목적과 달리 각 도시의 관광지와 유적지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탄핵 정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확산, 공공비축미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갈등 등 지방의원들이 관심을 뒤야할 현안이 많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아프리카, 발리, 하와이 연수와 관련해 일정, 연수 목적, 참석자 명단, 예산 등 정보공개를 청구해 도의회 국외연수 실태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zagoon@kwangju.co.kr

전남 해역 불법어구 사용 갈수록 는다

경제 불황 장기화로 생계형 무면허·무허가 어업도 증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대비단기 고소득이 가능한 생계형 무면허, 무허가 불법 어업이 늘고 있다. 불법 어구를 적재해두었다가 적발되는 선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2년 330건, 2013년 291건, 2014년 277건,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시군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한 399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불법 어구 적재가 154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면허·무허가

연종별로는 연안통발 26%, 무면허양식 19%, 연안자망 8%의 순서였으며, 여기에는 연안 수산자원을 씩씩이하는 대형기선저인망도 3건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역별로 동부해역에서는 무허가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변형어구 사용, 남부해역에서는 무면허 해조류양식과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서부해역에서는 무허가 실뱀장어바지안강망을 주 조업 시기에 맞춰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장용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종합대책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간 단속매뉴얼을 마련, 올해 분장이 예상되는 업종과 자원 남획 업종이 조업하는 해역을 선택해 어업지도선 장기 체류를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서 불법 어업을 원천적 차단하겠다"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첫 시행한 나치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특별단속, 조업 시기에 따른 불법 어업 사전 예방 홍보 및 지도 강화,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공모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여성재단이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16일 대표이사 공모 공고를 게시했다. 대표이사 공모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시의회 청문, 시장의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면접심사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 중 시장이 내정한 1인에 대한 시의회 청문을 거친 뒤 시장이 임명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icf.or.kr)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공모가 진행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공휴일 제외)까지 방문접수도 받는다.

광주여성재단도 오는 28일부터 3월7일까지 제4기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

대표이사는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모집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결정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시장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후 시장이 임명한다. 원서는 직접방문과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문의 광주여성재단 경영지원실 062-670-0551.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의 착한 기업 키우기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프로젝트

권역별 사업설명회 5기

우리 기업 제대로 키워봅시다. 그리고, 지역 사회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을 '사업설명회'에 초대합니다!

수도권	2월 6일 (월)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홈
대전/충청권	2월 7일 (화)	카이스트(본문) 창의학습관 터미널
대구/경북권	2월 9일 (목)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대회의실
전북권	2월 13일 (월)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다올마당
제주권	2월 15일 (수)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 교육장
강원권	2월 17일 (금)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대강의실
부산/울산/경남권	2월 20일 (월)	부산 창업카페 2호점 (부평대교 대연당빌딩)
광주/전남권	2월 21일 (화)	518교육관 대강의실

프로그램 1부 LCP 5기 공모 안내, 2부 전문가 강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로컬챌린지프로젝트 사례 포함)

일정 2월 21일 (화) 오후 2시~ 오후 5시 518교육관 대강의실

참가신청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thecircle.or.kr) *사전 참가신청 필수 *참가비 무료

문의 강소라 팀장 02) 3470-3633 sarah@thecircle.or.kr

지원내용 기업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전문가 집중 교육 (총 9일, 59시간)
- 기업의 경영 진단, 실행 계획 수립 및 실천에 함께하는 전문가 1:1 집중 멘토링
-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맞춤 지원
- 동그라미재단 '로컬리더스클럽' 멤버십 및 네트워크 제공
- 후속 지원 (사업 자금 유치 및 판로 개척 제공)